

Daily Auto Check

2021. 9. 14(Tue)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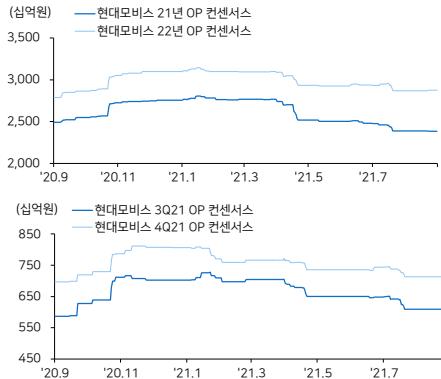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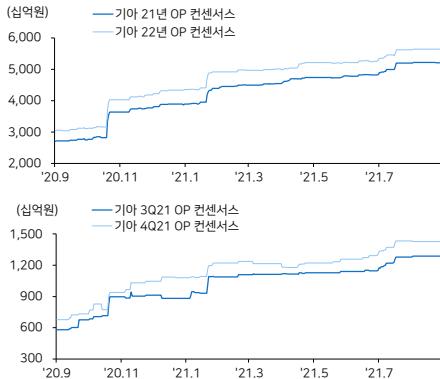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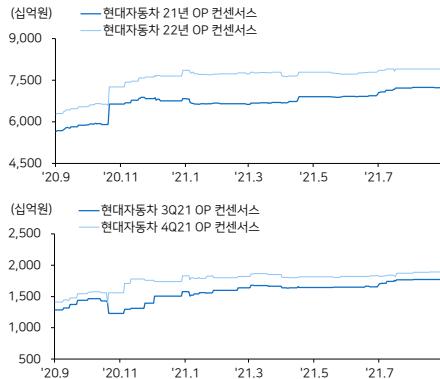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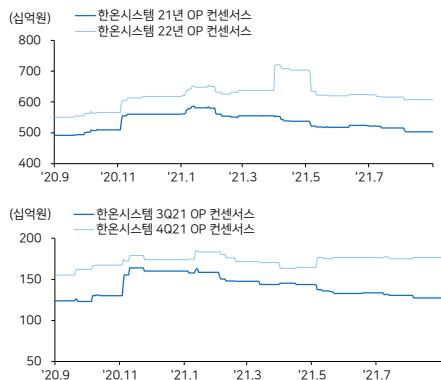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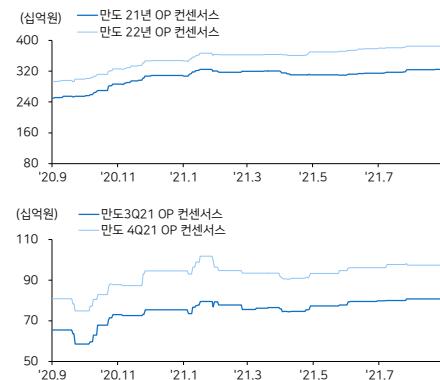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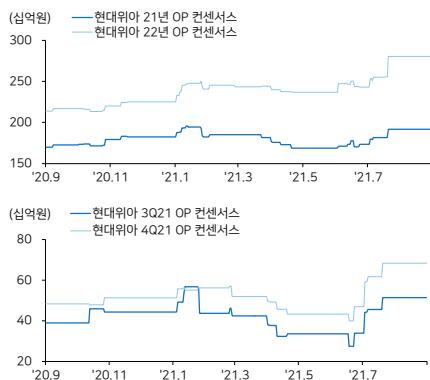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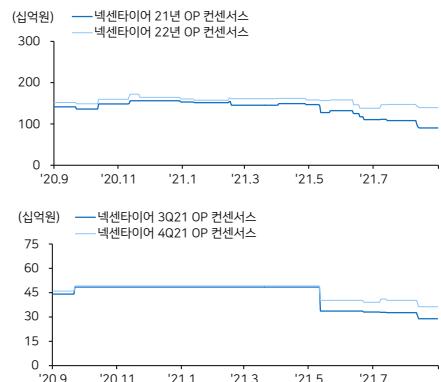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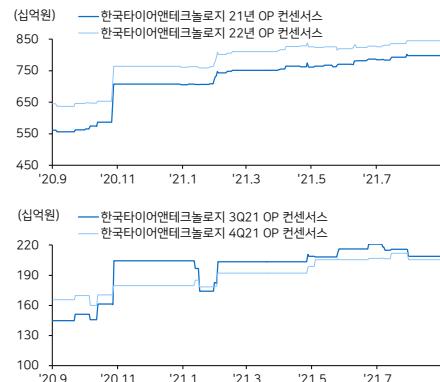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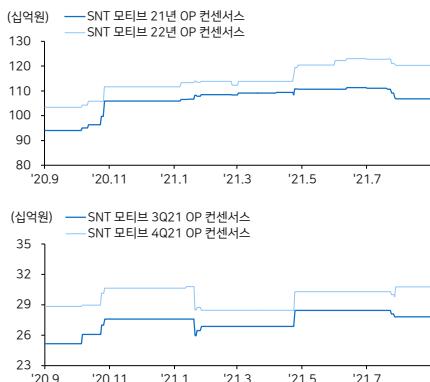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정의선 "로보틱스 시대, 더 많은 일자리 필요해" (이투데이)

13일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를 주제로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를 열고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정의선 회장은 '로보틱스 시대가 도래하면 더 많은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언급. <https://bit.ly/3tBz0du>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 재개... 자동차 반도체 재공급 (머니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덜타변이 확산 어파에 따른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문제로 지난 9~10일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생산을 재개함. 지난 생산중단으로 약 2000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https://bit.ly/3ly5Lw>

글로벌 반도체... 완성차 밀월... 한국은 강감강무소식' (서울신문)

WSJ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완성차와 반도체 기업 임원들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함. 최근 인텔, 퀄컴, TSMC CEO는 모두 반도체 생산공장 승설 또는 완성차 협력과의 협력을 선언한 바 있음. <https://bit.ly/3lkMVQ0>

중국, 전기차 판매 급증 속... 8월車 배터리 생산 160%나 급증 (초이스경제)

지난달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이 19.5 GWh를 기록해 지난해 8월보다 161.7% 늘어남. 이중 중국업체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생산량은 지난달 11.1GWh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68.2% 상승함. <https://bit.ly/3z3S6dn>

현대차 '19년만의 경차' 캐스퍼, 14일 사전예약...온라인 판매 (한국경제)

현대차가 국내 첫 경형 SUV 캐스퍼의 사전예약을 오는 14일 시작함. 캐스퍼는 연간 10만 판매량을 목표로 경차 시장의 '게임체인지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대차의 첫 온라인 판매 모델이 될 것. 올해 말까지 12,000대 생산을 계획. <https://bit.ly/3z6BFNG>

"올해 자동차 수출 14% ↑...생산 4.4% 증가 전망" (헤럴드경제)

올해 자동차 수출이 해외 시장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215만대로 전망됨.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내수는 3.5% 차량용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감소한 184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 <https://bit.ly/3tCYB5W>

"전기차 회사 너무 많다" 中, 옥석가리기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 이는 업계의 인수 합병을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됨. 중국 전기차 기업은 최소 400여 곳으로 추정됨. <https://bit.ly/2XfqMf4>

세계 5대 자동차주행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구글' 앤메克斯 (IT데일리)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인터넷 기업 앤메스(Yandex)의 자동주행 기술 부문인 앤메스SDG가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앤메스와 협력하게 된 것이 양사의 시너지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 <https://bit.ly/3hpj6h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에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